

圖 3. 聖居山 天興寺 銅鐘



圖 1. 乙丑銘 寶巖寺 銅鐘



圖 4. 驪州出土 清寧四年戊戌銘 銅鐘



圖 2. 白蓮寺 隆慶三年銘 銅鐘

上帶와 같이 蓮唐草紋帶로 돌리고 鐘口 가까이 이르러서는 작은 連珠紋을 接하여 處理하였다. 이상과 같은 特徵 以外에 가장 注目되는 것은 鐘口의 內傾한 口緣部에는 重要な 銘文 五九字가 陰刻으로 刻字되어 있어 本銅鐘이 平章事 奇氏가 寶巖寺에 증정한 鐘임을 알게 되었고 鐘의 鑄造年代도 把握하게 되었다.

陰刻銘文內容을 살펴보면, (圖 5)

伏爲先亡父母亡男將軍奇福法界迷倫咸登樂岸夫婦福壽延長後世同證菩提謹捨家財鑄成安于寶巖寺因無法眞者時乙丑六月日誌平章事奇
 이상과 같은 銘文의 判讀과 아울러 그 內容을 解釋하여 大略 본다면은 「먼저 돌아가신 부모와 죽은 아들 장군 기부와 범계에 미혹한 무무리를 이 모두 극락에 오르고 우리 부부 역시 壽와 福이 연장되고 후세 함께 보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삼가 가재를 바쳐 종을 주성하여 보암사에 봉안하는 바이다」라는 內容이며 末尾에 「時乙丑六月日誌平章事奇」라는 銘文과 本文內의 「亡男將軍奇福」이라는 銘文으로 보아 本銅鐘의 鑄成年代를 밝히는 데 重要な 점으로 보며 또한 奇氏家에서 屢원으로 造成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時乙丑六月日誌」의 銘文中乙丑년에 該當되는 것은 西紀 九六五年 高麗光宗一六年과 西紀一〇二五年 高麗顯宗一六年 그리고 西紀一〇八五年 高麗熙宗二年, 西紀一一四五年 高麗仁宗三年, 西紀一二〇五年 高麗熙宗六年, 西紀一二六五年 高麗元宗六年, 西紀一三二五年 高麗忠肅王二年, 西紀一三八五年 高麗禎王一年, 等에서 乙丑년이 보이고 朝鮮時代에서는 朝鮮時代初期인 西紀一四四五年 世宗二七年에 乙丑년이 보인다. ① 또한 銘文中 平章事와 將軍 등의 職名이 보이는 바 高麗中央職制에 依하여 平章事는 正二品이고 將軍과 正四品에 該當되는 벼슬이다. ② 高麗의 中央職制가 完成 定立된 때는 高麗一代 文宗 때이며 以後 繼續하여 中央職制에 平章事의 職名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時乙丑」과 「平章事奇」라는 것을 重視하여 볼 때 奇氏가 中央벼슬에서 勢道를 부리며 行세하던 때는 蒙古의 第三次侵入 以後이며 가장 盛기는 第二七代인 忠肅王 때인 점으로 보아 筆者의 생각으로는 역시 忠肅王二二年인 西紀一三二五年의 乙丑년이 아닐까 推定된다. 또한 忠肅王 以後부터는 奇氏의 勢道가 弱화되기 始作한 때이며 鐘의 形態와 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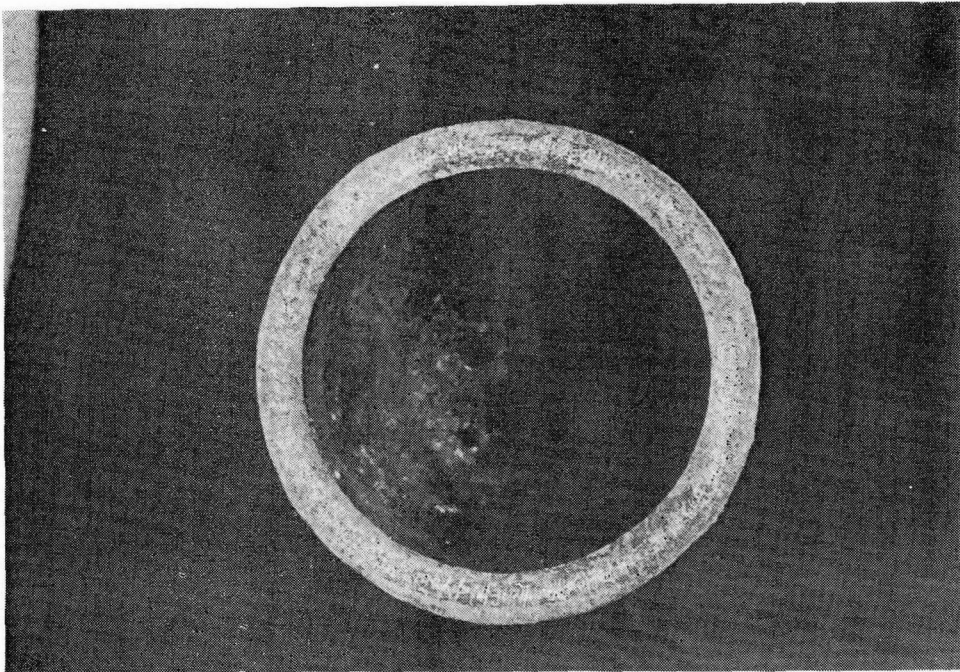


圖 5. 寶巖寺 乙丑銘銅鐘 口緣部の 陰刻銘文

式으로 보아도 一三〇〇年代以後로 下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鑄造年代도 역시 一三二五年乙丑을前後하여 鑄造된 것으로 보는 바이다.

三、隆慶三年銘銅鐘(圖版 2)

本銅鐘은 西大門區 白蓮寺 藥師殿內에 安置된 鐘으로서 一九七四年 一〇月 九日의 調査에서 壬辰倭亂前인 朝鮮前期에 屬하는 鐘임을 밝히게 되었다.

鐘의 形態와 樣式을 살펴본다면 全高 六四 cm 身高 五五 cm 口徑 五七 cm 로서, 龍鈕는 單龍으로 비늘과 頭上의 毛髮이 事實的이다. 甬筒은 龍尾로 감겨 있는 形狀으로서 현재는 甬筒이 切斷된 것으로 推定된다. 鐘肩上에는 三山形의 如意頭紋이 立狀으로 돌려 있고 上肩帶에는 長方形으로 區劃하여 그 內面에 一座석의 伏蓮을 彫刻하고 또한 그 內面에 珠紋이 四珠씩 陽刻되어 있다. 그리고 瓣內에는 斜格紋으로 裝飾하였고 蓮瓣周邊에는 連珠紋을 二列로 裝飾하였다. 鐘身上部 四處에 長方形의 乳廓과 圓座內의 梵字를 交互로 配置하였으며 乳廓周邊은 圖式化된 復葉蓮瓣을 돌리고 乳廓內의 九乳頭는 六瓣의 蓮華座中央에 突起되어 있다. 鐘의 下帶는 없으며 鐘身의 中心部下에 一帶를 돌리고 長方形으로 區劃하여 寶相華紋을 장식하고 있으며 特別히 鐘身에는 陰刻으로 後刻한

高陽郡 恩平面 白蓮寺 大鐘 當寺住持金西翁 主長 金翠雲 朝鮮隆熙 元年丁未

라는 銘文이 있다. 얼핏 보기에 朝鮮末에 鑄造된 鐘으로 判別하기 쉬우나 이번 調査時에는 鐘의 形態가 末期樣式이 아니고 時代가 올라가는 樣式을 갖고 있는 것이 異相하여 鐘全體를 洗滌하고 拓本을 한 結果 意外로 鐘身中腹全面에 點字로 陰刻 刻字한 銘文이 상당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隆慶三年己巳四月四日鑄」鐘……? 이라는 銘文이 發見되고 判讀됨으로서 本鐘이 壬辰亂前 西紀一五六九年 宣祖二年己巳에 鑄造된 前期鐘이라는 것 以外, 鐘身全體에 陰刻으로 點字한 銘文을 判讀하기 어려워 原所有寺刹과 鑄鐘記錄, 그리고 어떤 연유로 白蓮寺까지 移動되어 安置된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때까지 밝혀지고 紹介된 朝鮮前期에 屬하는 梵鐘 一〇口에 淸潭洞 奉恩寺洪武二

五年銘^③과 함께 二點이 더하여 一二口가 된 것이다.

四、結 言

전자에서 言及한 高麗末 「乙丑銘寶巖寺銅鐘」과 朝鮮前期에 屬하는 「白蓮寺隆慶三年己巳銘銅鐘」을 各己 그 時代에 屬하는 몇 개의 代表的 銅鐘들의 樣式과 形態에 따라 別個로 하여 比較하여 본다면 高麗銅鐘의 形態와 樣式의 變遷過程과 朝鮮時代 前期銅鐘의 形態와 樣式의 變遷過程을 概觀하여 볼 수 있다고 본다.

一、寶巖寺乙丑銘銅鐘

高麗前期에 屬하며 代表的인 銅鐘인 「天興寺銅鐘」(統和二八年庚戌二月日 一〇一〇, A D 高麗顯宗元年)(圖版 3)은 新羅鐘의 典型的인 樣式과 形態를 갖추고 있는 高麗鐘의 代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驪州에서出土된 「淸寧四年戊戌銘銅鐘」(高麗文宗一二年 一〇五八 A D)(圖版 4)에 이르러서는 「天興寺銅鐘」과 같이 新羅鐘의 樣式과 形態를 具備하고 있으면서도 이때 이르러서는 鐘肩에 立狀文帶가 나타나고 있는 點이다. 또한 鐘身에 있는 飛天像도 이 鐘에 와서는 奉德寺鐘、上院寺鐘 등의 新羅鐘이나 「天興寺鐘」에 보이는 雲文위에 무릎을 꿇고 두손을 合掌하고 天衣를 날리며 供養하는 飛天像이 아니고 다만 雲文위에 結伽跣座하고 頭身光을 갖춘 菩薩像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鐘身自體도 둔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塔山寺癸巳銘銅鐘」^④(圖版 6)에 이르러서는 龍鈕部分과 鐘身이 「均衡이 잡혀 있는 新羅鐘의 形態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鐘肩에 立狀紋帶가 淸寧四年戊戌銘銅鐘의 立狀紋帶와는 달리 蓮瓣紋帶로 나타나고 있는 點이다. 또한 幢座 역시 外廓에 連珠文帶를 돌리고 있으나 新羅鐘에서 보이는 當당한 幢座가 아니고 圖式化된 幢座이고 菩薩像 역시 「淸寧四年戊戌銘銅鐘」의 菩薩像과 同一한 形態를 갖추고 있다. 乳頭는 「天興寺銅鐘」과 新羅鐘들에서 보이는 突起된 平頭한 乳頭가 아니고 「淸寧四年戊戌銘銅鐘」과 같이 蓮花座 위에 子房이 약간 突起된 形態로서 되어 있다. 그러나 扶安 「來蘇寺貞祐十年壬午銘銅鐘」(圖 7)에서는 龍鈕와 鐘身의 均衡과 形態가 新羅鐘의 樣式을 갖추고는 있으나 鐘肩에 立狀帶의 蓮瓣紋內에는 忍冬紋으로 推定되는 文樣을 한



圖 8. 連川出土 高麗銅鐘



圖 6. 塔山寺 癸巳銘 銅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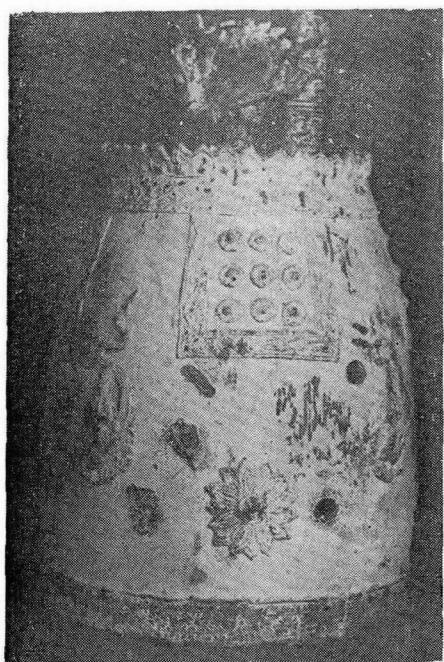


圖 9.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青銅小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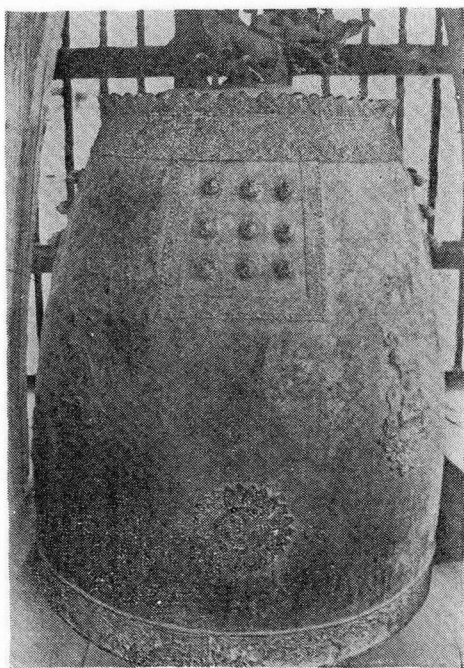


圖 7. 來蘇寺 銅鐘

蓮瓣立狀紋帶를 돌리고 있고 乳廓 역시 「塔山寺癸巳銘銅鐘」이나 「淸寧四年戊戌銘銅鐘」과 「天興寺銅鐘」의 乳廓과는 달리 比例가 맞지 않는 약식화된 乳廓帶로 處理하고 乳頭 역시 蓮봉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鐘身の 菩薩像도 座像의 菩薩像에 天衣를 날리고 兩脇侍를 갖추고 天蓋를 갖고 있는 三尊像이다. 幢座는 上記 三種의 幢座와는 달리 幢座의 外廓에 連珠文帝를 둘러지 않고 단순한 重瓣의 蓮花座로서 幢座를 하고 있는 형이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鐘의 上肩帶와 下帶의 文樣은 前者의 三例와 같이 寶相花文帶로 處理하고 있으나 그러나 漣川에서出土한 「高麗銅鐘」⑤(圖版 8)에 이르러서는 龍鈕와 鐘身に 具備한 여러 樣式이 前者의 四例와는 달리하고 있다. 즉 甬筒上部에는 連珠를 配置하고 있고 鐘肩上的 立狀文도 「來蘇寺銅鐘」과 같은 形式이나 어느 면에서는 더욱 뚜렷한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上肩帶、乳廓帶、下帶 등의 文樣은 全部 唐草文으로 處理하고 있고, 乳廓內의 九乳는 道식화된 蓮花座에 突起된 九乳를 갖추고 있으며 鐘身の 菩薩像 역시 頭光을 갖추고 合掌한 座像이고 幢座는 上記 四種에 비하여 몹시 약식화한 幢座이다. 이러한 前期에서 中期를 거쳐 末期에 이르는 동안 梵鐘의 몇 가지 특징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때문에 본 「寶嚴寺乙丑銘銅鐘」은 역시國立中央博物館所藏 「靑銅小鐘」(圖版 9)과 같은 樣式의 形態로 上記 五例의 鐘鍾에 比較하여 龍鈕에서 부터 鐘의 下帶에 이르기까지 모든 形態와 樣式이 약식화되고 道식화된 形態를 갖추고 있어 高麗鐘의 前期에서 부터 末期까지에 이르는 鐘의 形式변천에 銘文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高麗末 銅鐘으로 麗末 銅鐘樣式研究에 좋은 一例를 남기고 있다고 본다.

二、隆慶三年己巳銘銅鐘

이미 發表 소개된 朝鮮前期銅鐘인 「興天寺鐘」(世祖七年、一六六二)、 「普信閣鐘」(世祖一三年、成化四年 一四六八)、 「洛山寺鐘」(睿宗元年、一四六九)、「奉先寺鐘」(睿宗元年、一四六九)、「海印寺大寂光殿弘治四年銘鐘」(成宗一二年、一四九一)、「廣興寺萬曆元年銘銅鐘」(宣祖六年、一五七三)、「安靜寺所藏萬曆八年銘龍泉寺銅鐘」(宣祖一三年、一五八〇)、「石南寺萬曆八年銘銅鐘」(宣祖一三年一五八〇)、「泰安寺萬曆九年銘銅鐘」(宣祖

一四年、一五八一)、「甲寺銅鐘」(宣祖一六年、一五八三)等 一〇點⑥과 「奉恩寺 洪武二十五年銘銅鐘」、「白蓮寺 隆慶三年己巳銘銅鐘」과 같이 壬亂前銅鐘에 있어서 樣式과 形態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奉先寺、洛山寺、海印寺大寂光殿、興天寺、普信閣鐘들과 같이 中國鐘의 樣式을 본받은 鐘頂이 半球形이고 鐘身に 굵은 三條 太線을 돌리고 寶冠과 頭光을 갖춘 전형적인 朝鮮鐘들에서 보이는 立像의 菩薩像을 具備하고 上肩帶部分과 鐘身に 梵字를 配列한 鐘들이 있는 反面、白蓮寺銅鐘 廣興寺銅鐘、奉恩寺銅鐘들과 같이 高麗銅鐘의 形態를 갖고 있는 類型의 銅鐘들이 朝鮮時代末까지 두가지 類例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朝鮮時代鐘의 한 特徵이라고 볼 때 본 「白蓮寺隆慶三年己巳銘銅鐘」은 其中 高麗鐘의 形態를 갖춘 鐘으로써 좋은 例가 된다고 본다. 以上에서 약술한 鐘의 形態와 樣式의 變遷에 對한 比較는 이미 調査한 一五〇여점의 銅鐘을 整理하여 後에 「韓國梵鐘研究」에서 더욱 仔細하게 區分、比較說明 하고자 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註

- ① 東洋年表
- ② 震檀學會·韓國史 中世編과 高麗中央 職制表 參考 乙酉文化社 刊
- ③ 坪井良平·「朝鮮鐘」高麗後期鐘에 대한 說明文 記載內容 參照
- ④ 坪井良平·「朝鮮鐘」高麗前期鐘에 대한 說明文 塔山寺銅鐘에 對한 時代規定에 있어 癸巳年에 對한 解讀을 藤田亮策은 高麗 高宗一〇年癸巳(一一三三年)로 보고 있고 葛城末治는 高麗 文宗七年癸巳(一一〇五三年)로 보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塔山寺銅鐘의 樣式과 形態로 보아 一〇五三年 以前作品으로 보지 않고 一〇五八年(高麗 文宗一二年) 淸寧四年戊戌銘 銅錫보다 後代에 屬하는 一一一三年인 高麗睿宗八年癸巳 또는 一一七三年인 高麗 明宗三年 癸巳로 본다. 그리고 來蘇寺銅鐘보다는 모든 形態로 보아 시대가 앞서며 淸寧四年銘보다는 時代가 뒤떨어지는 作品이다.
- ⑤ 拙稿·「連川出土高麗銅鐘」考古美術所收
- ⑥ 鄭永鎬·「朝鮮前期梵鐘考」東洋學第一輯 檀國大學 東洋學研究所 刊